

**Session 19 The Cross and Gaining Eternal Riches (Mt. 16:16-27)**

**제 19 강 십자가, 그리고 영원한 부를 얻음 (마 16:16-27)**

**I. THE MESSAGE OF THE CROSS**

십자가의 도

- A. The message of the cross has two applications. First, we freely receive what Jesus did on the cross to enable us to be freely accepted in a deep, eternal relationship with God. Second, in a grateful response of love, we embrace His leadership, which leads us to die to desires outside of God's will.

십자가의 도는 두 가지 적용이 있다. 첫째,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공로를 값없이 받아서 하나님과의 깊고 영원한 관계 가운데 자유롭게 들어가게 되었다. 둘째, 우리는 사랑과 감사함으로 그분의 리더십에 순복하게 되는데,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갈망에 대해 죽을 수 있도록 해준다.

<sup>18</sup>*For the message of the cross... to us who are being saved it is the power of God. (1 Cor. 1:18)*

<sup>18</sup>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전 1:18)

<sup>14</sup>*But God forbid that I should boast except in the cross of our Lord Jesus Christ, by whom the world has been crucified to me and I to the world. (Gal. 6:14)*

<sup>14</sup>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 6:14)

1. Paul taught a two-fold message of the cross that releases the power of God in our lives. It is when both truths come together that the power of God is released in the greatest measure. The combination of believing in Jesus' work on the cross and responding in gratitude to Him by taking up the cross releases God's power in us, liberty in our heart, and treasure in heaven.

바울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시는, 십자가의 도의 두 부분에 대해서 가르쳤다. 이 두 개의 진리가 하나로 합쳐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최대의 분량으로 부어지는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믿는 것과 십자가를 짐으로써 그분께 감사로 반응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며, 우리 마음에 자유를 부어주며, 하늘의 보물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한다.

<sup>24</sup>*...come after Me, let him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Mt. 16:24)*

<sup>24</sup>...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 16:24)

<sup>21</sup>*...you will have treasure in heaven; and come, take up the cross... (Mk 10:21)*

<sup>21</sup>...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십자가를 지고 ...(막 10:21, 한글 KJV [개역개정에는 '십자가를 지고'가 생략되어 있음])

2. Many believe in the finished work of Christ, but then refuse to take up their cross and deny themselves attitudes and actions that are outside of God's will, limiting their experience of the power of God. Their heart continues to be dominated by anger, fear, bitterness, anxiety, depression, and concern over who is not giving them the honor that they feel they deserve.

많은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사역은 믿고 있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태도나 행동을 부인하는 것을 거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부분적으로만 경험하고 있다. 그들의 마음은 계속해서 자신에게 마땅한 대우를 해주지 않는 이들에 대한 분노, 두려움, 비통함, 불안감, 우울함. 그리고 염려 등에 사로잡힌다.

- B. Peter said that Jesus was the *Christ* (Messiah; the Son of David) and the *Son of God* (Mt. 16:15). This declaration happened about 9 months before the cross. *Christ* comes from the Greek *christos* that translates for the Hebrew word *mashiach* translated in English as *messiah* (or anointed one).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메시아; 다윗의 자손)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마 16:15). 이 고백은 십자가 사건 9 개월 전에 일어났다. 그리스도는 헬라어 크리스토스(*christos*)에서 온 것으로, 영어로 메시아(혹은 기름부음 받은 자)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마시아흐(*mashiach*)를 번역한 것이다.

***<sup>16</sup>Simon Peter...said,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sup>17</sup> Jesus answered...<sup>18</sup>"...on this rock I will build My church, and the gates of Hades shall not prevail against it."<sup>20</sup> Then He commanded...that they should tell no one that He was...the Christ. (Mt. 16:16-20)***

<sup>16</sup>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sup>17</sup> 예수께서 대답하여... <sup>18</sup>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sup>20</sup>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시라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마 16:16-20)

- C. ***On this rock***: This rock speaks of the truths about Jesus' person as the One who is fully God and fully Man (16:16). Since He is God, His leadership is authoritative and final. In the next ten verses (16:18-27), He described foundational truths about His leadership on which He builds His Church.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예수님이 온전히 하나님이시면서 온전히 인간이시라는 진리를 말한다(16:16).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리더십은 권위가 있고 최종의 권위를 가지신다. 다음 구절들(16:18-27)에서는 예수님의 리더십에 대한 근본적인 진리, 그리고 이 위에 그분이 교회를 세우시는 것을 설명하신다.

- D. The apostles did not understand what kind of Messiah Jesus was—a suffering and dying Messiah. They were looking for a conquering king to liberate Israel from the oppression of Rome.

사도들은 예수님이 어떤 종류의 메시아인지, 즉 고통 받고 죽임 당하는 메시아인지 깨닫지 못했다. 그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자유케 할 정복하는 왕을 기대하고 있었다.

***<sup>21</sup>From that time Jesus began to show to His disciples that He must go to Jerusalem and suffer many things...be killed, and be raised the third day. <sup>22</sup>Then Peter...began to rebuke Him, saying, "...this shall not happen to You!" <sup>23</sup>But He turned and said to Peter, "Get behind Me, Satan! You are an offense to Me, for you are not mindful of the things of God..." (Mt. 16:21-23)***

<sup>21</sup>이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삼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sup>22</sup>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sup>23</sup>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 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 (마 16:21-23)

- E. Peter's confession was accurate, but inadequate—not understanding He must die to redeem Israel. Peter had no grid for the Son of David dying—thus, apparently, failing. Jesus knew that, until the apostles grasped this, they would bring confusion about His identity and leadership.

베드로의 고백은 정확했지만, 충분치 않았다. 그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속하기 위해 죽으셔야만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베드로는 다윗의 자손이 죽는다는 것, 이와 같이 분명히 실패하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예수님은 사도들이 이것을 깨달을 때까지 예수님의 정체성과 리더십에 대해 혼란을 겪을 것을 아셨다.

- F. Jesus is the Suffering Servant (Ps. 22; Isa. 53) who had to die to redeem His people (Rev. 5:9). Jesus gave three predictions of His death and resurrection (Mk. 8:31-33; 9:30-32; 10:32-34).

예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구속하기 위해 죽으셔야 하는 (계 5:9) 고난당하는 종이다 (시 22 편; 사 53 장). 그분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세 번 예고하셨다 (막 8:31-33; 9:30-32; 10:32-34).

<sup>9</sup>And they sang a new song, saying: “You are worthy...for You were slain, and have redeemed us to God by Your blood out of every tribe and tongue and people and nation, <sup>10</sup>And have made us kings and priests to our God; and we shall reign on the earth.” (Rev. 5:9-10)

<sup>9</sup>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sup>10</sup>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계 5:9-10)

## II. FOUR FOUNDATIONAL TRUTHS ABOUT JESUS AND HIS LEADERSHIP

예수님과 그분의 리더십에 대한 네 가지 근본적인 진리

I identity four foundational truths set forth in the gospels that the apostles had to receive about Jesus before they were prepared to lead the Church in the book of Acts.

복음서에서는 네 가지 근본적인 진리들, 즉 사도들이 사도행전의 교회를 이끌 준비가 되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 받아들여야 했던 진리들을 볼 수 있다.

- A. **Messiah:** They were convinced that Jesus was Messiah or the Christ—fulfilling the prophetic Scriptures about the Son of David. They understood this in their first year of being with Jesus.

메시아: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 곧 다윗의 자손에 대해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실 분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한 첫해에 이것을 깨달았다.

- B. **Son of God:** They were convinced that Jesus was God only about 9 months before the cross.

하나님의 아들: 그들은 십자가 사건 9 개월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 C. **Put to death:** They did not understand that Jesus was going to die until He went to the cross.

죽임 당하심: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그분이 죽임 당하실 것에 대해 깨닫지 못했다.

- D. **Raised from death:** They did not understand that Jesus was going to be raised from death and that He would return to rule the nations with His people until after His resurrection (Acts 1:4-8).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과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 돌아오실 것을 깨닫지 못했다 (행 1:4-8).

<sup>14</sup>*Then to Him [Jesus] was given dominion...that all peoples, nations, and languages should serve Him. His dominion is an everlasting dominion...<sup>27</sup>Then the... greatness of the kingdoms under the whole heaven shall be given to...the saints of the Most High. (Dan. 7:14, 27)*

<sup>14</sup>그[예수님]에게 권세...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영원한 권세요 ...<sup>27</sup>...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단 7:14, 27)

### III. JESUS' LONG-TERM PLAN: TO FILL THE EARTH WITH LOVE AND HUMILITY

예수님의 장기적인 계획: 사랑과 겸손으로 온 땅을 채우시는 것

- A. Jesus' long-term plan is to fill the earth with God's glory— including His love, humility, power, wisdom, goodness, and beauty. He began to do this *in part* after His first coming and will do this *in fullness* when He returns to the earth (Num. 14:21; Ps. 45:4; Hab. 2:14; Mt. 11:29; 1 Pet. 3:4).

예수님의 장기적인 계획은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사랑, 겸손, 능력, 지혜, 선하심, 그리고 아름다움으로 온 땅을 채우시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분의 초림 때 이 계획을 부분적으로 시작하셨는데,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계획을 충만히 이루실 것이다 (민 14:21; 시 45:4; 합 2:14; 마 11:29; 벰전 3:4).

<sup>21</sup>*...truly, as I live, all the earth shall be filled with the glory of the LORD. (Num. 14:21)*

<sup>21</sup>...진실로 내가 살아 있는 것과 여호와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 (민 14:21)

- B. God's highest agenda for His people in this age in the simplest terms is that love and humility be produced in and expressed through them. Jesus called His people to learn humility from Him because He will fill the earth with it (Ps. 45:4). Love and humility will fill every sphere of society.

하나님이 이 세대 가운데 그분의 백성들을 향한 가장 높은 목적을 제일 간단히 표현하면 사랑과 겸손(온유)이다. 그분의 백성들이 사랑과 겸손(온유) 가운데 자라가고 그들을 통해 사랑과 겸손(온유)이 나타나길 원하신다. 예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자신에게 겸손(온유)을 배우도록 부르시는데 그분이 겸손(온유)로 이 땅을 가득 채우실 것이기 때문이다 (시 45:4). 사랑과 겸손(온유)으로 사회의 모든 영역이 채워지게 될 것이다.

<sup>29</sup>*Take My yoke upon you and learn from Me, for I am...humble in heart... (Mt. 11:29, NAS)*

<sup>29</sup>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 (마 11:29)

<sup>4</sup> *In Your majesty ride prosperously because of truth, humility, and righteousness...* (Ps. 45:4)

<sup>4</sup>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 (시 45:4)

<sup>5</sup> *Blessed are the meek, for they shall inherit [rule] the earth.* (Mt 5:5)

<sup>5</sup>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 [땅을 다스릴 것] 임이요 (마 5:5)

#### IV. JESUS' 3-FOLD EXHORTATION LEADING TO ETERNAL REWARDS (MT. 16:24-27)

영원한 상급으로 이끄는 예수님의 세 가지 권고 (마 16:24-27)

- A. Jesus defined the nature of discipleship and of walking in relationship with Him in a way that honors His leadership and releases His power (Mt. 16:24-27). Jesus spoke these words to “the crowds” (Mk. 8:34). It is not a deeper life message that was only for the apostles, but an invitation to salvation, liberty, and eternal rewards in context to a God-centered orientation of life.

예수님은 제자도의 본질과 그분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정의하셨는데 (마 16:24-27), 이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능력이 부어지게 한다. 예수님은 이 말씀들을 ‘무리들’에게 전하셨다 (막 8:34). 이것은 사도들만을 위한 심오한 인생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지향하는 자들을 위한 구원과 자유, 그리고 영원한 상급으로의 초청이다.

<sup>24</sup> *If anyone desires to come after Me, let him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sup>25</sup> *Whoever desires to save his life will lose it, but whoever loses his life for My sake will find it. <sup>26</sup>For what profit is it to a man if he gains the whole world and loses his own soul? Or what will a man give in exchange for his soul? <sup>27</sup>For the Son of Man will come in the glory of His Father with His angels, and then He will reward each according to his works. (Mt. 16:24-27)*

<sup>24</sup>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sup>25</sup>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sup>26</sup>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sup>27</sup>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마 16:24-27)

- B. **Deny himself:** This includes resisting attitudes, actions, and speech that are contrary to God’s will. It is more than a “requirement,” as it is an opportunity to gain eternal rewards. This call is not mostly about denying sinful pleasures, but about denying bitterness, anger, complaining, self-pity, retaliation, manipulation, covetousness, quitting, and more. It speaks of placing God’s plans and ways above ours. It is not a call to asceticism, self-hatred, or punishing ourselves for our failures.

**자기를 부인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태도, 행동, 그리고 언행을 거절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필요조건’ 이상의, 영원한 상급을 얻을 기회다. 이 부르심은 최악된 즐거움을 부인하는 것만 아니라, 비통, 분노, 불평, 자기 연민, 보복, 조종, 탐욕, 부르심의 삶을 중단하는 것 등을 부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과 방식을 우리의 그것들 보다 위에 두는 것이다. 이것은 금욕주의나 자기 증오, 혹은 자신의 실패에 대한 벌을 주라는 말이 아니다.

- C. **Take up our cross:** This speaks of not quitting in the face of difficulties—not to draw back in our love, diligence, or responsibilities. Jesus had to carry a nearly 100-pound crossbar on His shoulders for about half a mile from where He was charged in Pilate’s court to where He was executed. The phrase “take up our cross” pictures carrying a burdensome weight for a period of time. The Lord does not want us to quit when our responsibilities are difficult, but to carry our cross in the pressure. We are to keep responding to God with gratitude and faith and to keep serving people patiently. Carrying one’s cross looks different to everyone; it includes pressures in our relationships, body, finances, and more. We do not ask for an easy life, but for a life that is worth it—beyond the grave.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것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만두지 않는 것이며, 사랑, 근면, 또한 책임감을 가지고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은 100 파운드에 가까운 십자가를 그분의 등에 지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 형벌을 받으신 곳까지 0.5 마일을 가셔야 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어느 기간 동안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 주님은 우리의 책임이 어려워진다고 해서 그만두는 것을 원치 않으시며, 오히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기 원하신다. 우리는 감사와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며 계속해서 인내함으로 사람들을 섬겨야 한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각자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며, 이는 우리의 관계, 육신, 재정 등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우리는 수월한 삶을 구하기보다, 가치 있는 삶, 즉 죽음 이후에도 가치 있을 삶을 구해야 한다.

- D. **Follow Me:** This includes pursuing godly attitudes and actions—as we diligently embrace our “ministry assignments” from the Lord during different seasons of our life.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은 경건한 태도와 행동을 추구하는 것이며, 곧 우리 삶의 각기 다른 시즌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을 말한다.

- E. **He will reward each according to his works:** Jesus connected denying ourselves and taking up our cross to gaining eternal rewards (Mt. 16:27). This is about intimacy with God. Jesus promised to give eternal rewards to His people (16:27) that are directly connected to their “works,” or according to how they denied themselves, took up their cross, and followed Him in practical ways (16:24).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영원한 상급을 얻는 것과 연결시키셨다 (마 16:27). 이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연관이 있다. 예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상급을 약속하셨는데 (마 16:27), 그들이 ‘행한 일’ 즉, 그들이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랐는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16:24).

<sup>27</sup>**For the Son of Man will come...then He will reward each according to his works. (Mt. 16:27)**

<sup>27</sup>인자가...오리니 그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마 16:27)

<sup>12</sup>“...My reward is with Me, to give to every one according to his work. (Rev. 22:12)

<sup>12</sup>... 내가 줄 살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계 22:12)

- F. Jesus taught on eternal rewards more than anyone else. He called His people to receive **rewards** (Mt. 5:12; 6:4, 6, 18; 10:41-42; 16:27; Mk. 9:41; Lk. 6:23, 35; Rev. 22:12); to become **great** in the age to come (Mt. 5:19; 18:4; 23:11; Mk. 10:42-43; Lk. 6:23, 35; 9:48; 22:26); to receive **treasure** or **riches** in heaven (Mt. 6:20; 19:21; Mk. 10:21; Lk. 12:21, 33; 16:11; 18:22; Rev. 2:9; 3:18); to **rule** over many things (Mt. 25:21, 23) with **authority** over cities and nations (Lk. 19:17, 19; Rev. 2:26-27); to sit on **thrones** (Mt. 19:28; 20:21; Lk. 22:30; Rev. 3:21); to gain **crowns** (Rev. 2:10; 3:11).

예수님은 영원한 상급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많이 가르치셨다. 예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상급을 받도록 (마 5:12; 6:4, 6, 18; 10:41-42; 16:27; 막 9:41; 눅 6:23, 35; 계 22:12); 장차 올 세대에 위대한 자가 되도록 (마 5:19; 18:4; 23:11; 막 10:42-43; 눅 6:23, 35; 9:48; 22:26); 하늘에 보물과 부를 쌓도록 (마 6:20; 19:21; 막 10:21; 눅 12:21, 33; 16:11; 18:22; 계 2:9; 3:18); 많은 것들을 다스리도록 (마 25:21, 23) 성읍과 열방을 다스릴 권세로 (눅 19:17, 19; 계 2:26-27); 보좌에 앉도록 (마 19:28; 20:21; 눅 22:30; 계 3:21); 면류관을 얻도록 (계 2:10; 3:11) 그들을 부르셨다.

## V. TAKE UP THE CROSS DAILY

###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

- A. Jesus called us to take up our cross *daily* (Lk. 9:23), knowing that we will have attitudes and desires throughout the day that we need to deny as we walk in agreement with God's will. The Holy Spirit shines His spotlight on areas at a pace we can respond to. He convicts us with hope that it is doable because we are doing it together with Him and that is worth it because each time that we die to something in response to Him, it is followed by a fresh impartation of life and eternal rewards.

예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고 부르셨는데 (눅 9:23),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며 행할 때 부인해야 할 태도와 욕망들이 있을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 성령님은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속도로 그러한 영역들에 빛으로 조명하신다. 그분은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다는 소망으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그분과 함께 해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확신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분께 반응함으로 무언가에 대해 죽을 때마다 생명이 새롭게 부어지고 영원한 상급이 따르기 때문이다.

<sup>23</sup>...let him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daily, and follow Me. (Lk 9:23)

<sup>23</sup>...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눅 9:23)

- B. **Daily:** There are several opportunities each day to gain eternal rewards by denying our tendency to respond to pressure and temptation with negative attitudes, actions, or speech.

**날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유혹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나 언행으로 반응하려는 것을 부인함으로써 영원한 상급을 얻을 기회들이 날마다 여러 번 있다.

- C. Denying ourselves seems contrary to many popular ideas about His promises to abundantly bless our lives now. One of the most challenging aspects of His leadership to our natural mind is that He wants to fill the earth with His abundant outward blessings and manifest power, but *in context* to people who express deep love and humility. There is a time delay between the time when God's people choose love and humility and when God *fully* manifests His glory through His people. The Lord's plan is to manifest His blessing *in part* in this age and *in fullness* in the age to come.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그분이 지금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다고 하는 많은 대중적인 의견들과 부딪치는 것처럼 보인다. 그분의 리더십에 대해 우리의 자연적인 사고에 가장 도전이 되는 측면 중에 하나는, 그분의 풍성한 축복과 능력으로 이 땅을 채우시되 깊은 사랑과 겸손을 보이는 백성들을 통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랑과 겸손을 선택하는 때와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을 그분의 백성들을 통해 **충만히** 나타내시는 것 사이에 시간 차이가 있다. 주님의 계획은 주님의 축복이 이 세대에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장차 올 세대에 **충만히** 나타나는 것이다.

- D. **Save his life:** Anyone who seeks to find their significance, honor, lasting riches, achievements, identify, and satisfaction outside of God's will shall lose them completely at their death. Paul taught that some in the age to come will suffer the loss of rewards that could have been theirs—they are saved, but as by fire (1 Cor. 3:15). They have nothing to show for their life on the earth,

**목숨을 구원하고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그들의 중요성, 명예, 부, 성취, 정체성, 그리고 만족감 등을 찾자 한다면, 그가 죽을 때 그것들을 완전히 잃게 될 것이다. 바울은 장차 올 세대에 어떤 이들은 받을 수 있었을 상급을 잃게 되는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가르쳤다. 그들은 구원은 받지만, 불 가운데서 받은 것(고전 3:15)이다. 그들은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 아무것도 보여줄게 없다.

<sup>25</sup>*Whoever desires to save his life will lose it, but whoever loses his life...will find it. (Mt. 16:25)*

<sup>25</sup>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마 16:25)

<sup>15</sup>*If anyone's work is burned, he will suffer loss; but he himself will be saved... (1 Cor. 3:15)*

<sup>15</sup>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 (고전 3:15)

- E. Love, humility, and God's remembrance of our acts of obedience are the only things we take with us beyond the grave to the age to come. We do not take our money, properties, possessions, trophies, accomplishments, awards, résumé, database, or reputation with us.

사랑, 겸손,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순종의 행동들만이 죽음을 넘어서 장차 올 세대까지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다. 우리가 돈이나 재산, 소유물, 트로피, 업적, 상, 경력, 데이터베이스, 명성을 가져갈 수는 없다.

- F. **Loses his life:** Anyone who refuses to seek their honor, lasting riches, achievements, identity, and satisfaction outside of God's will shall find fulfillment in fullness after their death (in heaven). The Lord will then give them all the honor, riches and glory that they could imagine (1 Cor. 2:9).

**제 목숨을 잃으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명예, 부, 업적, 정체성, 그리고 만족을 구하기를 거절하는 이들은 그들의 죽음 이후에 (하늘에서) 이것들의 충만한 성취를 볼 것이다. 주님은 그 후에 그들이 상상했던 모든 명예, 부, 그리고 영광을 주실 것이다 (고전 2:9).

- G. Jesus asked two questions (16:26)—to cause them to think about what they really profit if they gain things that they lose when they die and what they would give in exchange for their soul.

예수님은 두 가지 질문을 하셨다 (16:26)- 그리고 그들이 죽으면 없어질 것을 얻는다면 도대체 무엇이 유익하며, 자신의 목숨을 주고 바꿀 것이 있을지 그들이 생각해보길 원하셨다.



<sup>26</sup>For what profit is it to a man if he gains the whole world and loses his own soul? Or what will a man give in exchange for his soul? <sup>27</sup>For the Son of Man will come in the glory of His Father with His angels, and then He will reward each according to his works. (Mt. 16:26-27)

<sup>26</sup>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sup>27</sup>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마 16:26-27)

- H. Jesus is not a tough leader who callously calls us to deny ourselves. He is a fully convinced leader who knows what no one else knows about the age to come. *He is convinced of the superior value of what He is calling us to.* Jesus is the only Man with divine revelation on how to make choices here that will increase our riches and experience in the glory of God in our life for all eternity.

예수님은 냉담하게 우리를 부르셔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시는 거친 리더가 아니시다. 그분은 장차 올 세대에 대해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계시는 온전히 확신에 찬 리더시다. **그분은 우리를 부르신 그 일의 최상의 가치에 대해 확신하고 계신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결정들이 영원에서의 우리 삶을 어떻게 부요하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경험하도록 하는지에 대한 하늘의 계시를 가지신 유일한 분이시다.